

## [인터뷰] 김민기 대표 “중소기업,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연수’로 강한 중기되도록 도울 것”

지비산업정보원, 사전 시장 트렌드 조사, 사후 결과보고서로 차별화  
‘일자리 창출’ 연수 등 트렌드 반영 해외 벤치마킹 연수 진행

기술이 원천인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선진 기술을 ‘보는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인들은 배움에 목말라 있다. 지비산업정보원은 이런 기업인들의 소구점을 채워주는 ‘벤치마킹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0일 서울 가산 디지털단지 지비산업정보원 본사에서 만난 김민기 대표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해외공단을 한번 둘러보기만해도 공정이나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지 압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생산루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메인사업이기 때문에 연수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한국인 특유의 배우려는 의지로 이런 연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고 말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강점은 국내 기업들이 선진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해외 우수 업체들과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다. 김 대표는 “지비산업정보원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 10여국에 퍼져있는 지역 본부입니다. 독일, 덴마크, 중국 상하이(上海)-선전 등 각국에 퍼져있는 지역본부를 통해 국내 기업이 원하는 해외기업들과 제휴를 맺어 연수를 진행하는 거죠. 또 문화체험과 맞물리게 되는 연수 프로그램이 도태되지 않도록 매달 시장 트렌드를 조사하고 각 기업들에 뉴스레터를 전달합니다”고 설명했다.

지비산업정보원의 또 다른 무기는 철저한 사후 프로그램이다. 해외 연수 자체를 관광·여행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시선을 없애기 위해 연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관리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수를 준비하게 되면 사전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자료 등을 받는다. 연수가 일반적인 개요 설명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매년 3~4차례 진행되는 연수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서가 정량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점 등을 함께 조사해 다음 회차의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다른 업체 연수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김 대표는 “이전에는 공공기관 비중이 전체 고객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진행한 여러 사업들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비중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대학이 해외의 선진 사례를 배우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차고 유익한 연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ah\_89@asiatoday.co.kr



김민기 지비산업정보원 대표가 10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내 지비산업정보원 본사에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사진=김진아 기자